안녕하세요 1305호입니다.

지난 약 3개월정도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보단 먼저 글로서 말씀드리는게 원만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글을 남깁니다.

평일에는 대략 오후 7,8시부터 12시 전후까지 발망치 소리가 지속되는 일이 많습니다. 한 번 소리가 날 때마다 5회 이상의 쿵쿵쿵쿵쿵 소리가 나는데, 소리의 간격을 들어보면 약간 빠르게 걸을 때 나는 소리로 생각됩니다. 어떤 날은 들리지 않는데, 어떤 날은 너무 심합니다. 최근에는 소리가 날 때마다 천장을 두드려 보기도 하였으나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괴로운 때는 주말입니다. 새벽부터 들릴 때도 간혹 있으며, 주말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 모두 간헐적으로 발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발망치 소리가 날 시에는 제 집안 전체가 울려 헤드폰이나 귀마개를 해야할 정도입니다. 특히 평일 저녁 이후 시간이 집중적이어서 집에서 운동을 하시는 건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발망치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어나게 되자 더이상은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예민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으나, 손님이 한 번 방문하였을 때 발망치 소리가 1시간을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9~10시였는데, 그 손님도 발망치 소리가 너무 크다며 신경질을 냈었습니다. 그 이후로 발망치 소리가 날 때마다 직접 찾아가 말씀드릴지 말지 수십 번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살 때 윗집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새벽부터 싸우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잦은 싸움 끝에 그 윗집이 결국 이사를 가게 되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것은 너무 좋았으나 윗집과 싸울 때마다 제 기분도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건물의 설계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충분한 방음재를 사용하지 않고 소음이 전달되기 쉬운 구조를 사용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건물은 이미 지어졌고, 주민들간의 배려만이 현재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1405호 주민분의 넓은 아량으로 제 상황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간에 목소리를 높이는 일 없이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아랫집인 1205호는 배란다에서 담배를 핍니다. 제가 배란다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는 발망치 소리로 시달리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걸음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음이 대각선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어, 1404호에도 주의 부탁드리는 글을 써놨습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1305호 올림.